

삼성석유화학 허태학 사장 “명에 농림장관”

농림부는 4월24일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일일 명예장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농림부의 일일 명예장관을 맡는 것은 3월 SK케미칼의 김창근 대표이사 부회장에 이어 허태학 사장이 2번째이다.

허태학 사장은 4월24일 오전 8시50분 농림부에서 위촉장을 받은 뒤 직원 조회에서 강연을 하는 것으로 농정 현황 청취 등 오후 늦게까지 명예장관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SK에 이어 삼성 CEO 가운데 농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을 수소문 한 결과 허태학 사장이 에버랜드에서 오래 근무했고 농고와 농대를 나와 명예장관을 제의했다”며 “허태학 사장도 명예장관 취지를 듣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과 농업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달 외부인사 한명을 일일 명예장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5>